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인공지능 전기차 '오토 나베트' 실험 중	파리
산업·경제	3	'사회적 연대경제' 국제행사 한 달간 개최	파리
환경·안전	5	좁은 회전반경·골목에도 대응 가능 소방차 투입	샌프란시스코
	7	주민투표로 석탄발전 2022년까지 완전 중단 결정	원헨
도시계획·주택	8	도시정체성 등 5개 테마 담긴 '디자인 가이드라인'	버밍엄
	10	공실세 내년 시행...멜버른 도심 16개 구에 적용	빅토리아
	12	쇼핑명소 옥스퍼드 거리,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	런던

인공지능 전기차 ‘오토 나베트’ 실험 중

교통취약지역 중심 운행...출퇴근시간 때 지하철 보조 역할

프랑스 파리시 / 도시교통

- 프랑스 파리시가 최근 실험 중인 인공지능 전기차 ‘오토 나베트’(Navette Autonome)는 장애인과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출퇴근시간 혼잡지역에서 지하철 등 기존 교통수단을 보완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1차 실험에 참여한 시민의 호의적인 반응에 힘입어 본격적인 실험에 돌입
- 개요
 - 인공지능으로 운행하는 6인승 소형 친환경 전기버스
 - ‘오토 나베트’는 운전자가 없다는 의미의 오토놈(Autonomie)과 100% 전기로 작동하는 소형버스인 나베트(Navette)의 합성어
 - 운전자는 없지만, 안전요원 한 명은 항상 탑승
 -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 확립과 시민의 이동권 향상에 이바지
 -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통수단
 - 이동권이 제약된 장애인과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 차원에서 도입
 - 또한, 인구과밀로 지하철과 버스가 모든 통행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혼잡 지역에서도 짧은 구간을 인공지능으로 왕복해 교통불편을 해소
 - 파리지하철공사(RATP)는 ‘오토 나베트’가 교통 수요와 공급 사이의 미묘한 괴리를 채워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
 - 파리시, 파리지하철공사, 수도권교통청(Ile-de-France Mobilité)이 협력해 도입
- 주요 내용
 - 2017년 1월 첫 번째 실험
 - 2017년 1월 23일부터 3개월간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구간인 리옹역(Gare de Lyon)과 오스테를리츠역(Gare d'Austerlitz) 사이에서 진행
 - 매일 400명씩 총 3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했고, 승객의 전반적인 반응은 매우 호의적

- 첫 번째 실험 이후, 인구가 적어 교통수단이 취약한 지역에도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
- 교통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실험을 진행
 - 첫 번째 실험의 성공에 힘입어 두 번째 실험을 계획
 -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할 이번 실험은 교통수단이 부족한 뱅센느(Vincennes) 성(城)에서 뱅센느 숲까지 운행할 예정
 - 지난번과 달리 실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객 의견을 지속 청취하기로 결정
 - 또한, 러시아워 때는 지하철을 보조하기 위해 많은 수의 ‘오토 나베트’를 배차간격이 거의 없도록 배치할 계획
- 2018년부터 새로운 인공지능을 실험
 - 데이터센터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인공지능 장치를 두 대의 ‘오토 나베트’에 설치
 - 해당 구간의 교통불편 해소에 필요한 ‘오토 나베트’의 수를 예측
 - 자동주차(Garage Intelligent) 기능을 탑재해 스스로 주차공간을 찾아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예정



[그림 1] 실험 중인 ‘오토 나베트’의 실제 모습

<https://www.paris.fr/actualites/navette-autonome-nouvelle-experimentation-dans-le-bois-de-vincennes-5290>

<https://www.paris.fr/actualites/30-000-voyageurs-ont-teste-les-navettes-autonomes-4709>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산업·경제

‘사회적 연대경제’ 국제행사 한 달간 개최

프랑스 파리지 / 산업·경제

- 프랑스 파리시는 11월 한 달간 ‘사회적 연대경제’(ESS: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국제행사를 열고, 세계적 전문가가 모여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정상회담 개최, 지원 플랫폼 론칭, 사회적 연대경제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시상식 등을 진행
- 배경
 - 세계 각국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사회적 연대경제
 - 핵심가치는 부의 공정한 분배와 평등한 거버넌스(Governance)
 - 파리시가 추구하는 넓은 의미의 사회적 연대경제는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 시정부는 사회적 연대경제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관련 활동을 독려
 - 파리시 GDP의 10%는 사회적 연대경제와 관련된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가 이미 담당
 - 안 이달고(Ane Hidalgo) 시장의 취임 이후 파리시에서 매년 1천여 개의 사회적 연대경제 관련 경제주체가 탄생
- 사회적 연대경제 국제행사
 - 목적: 사회적 연대경제로의 전환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파리시가 세계 사회적 연대경제의 중심도시가 되는 데에 이바지
 - 1) ‘세계 사회적 비즈니스 정상회담’(Global Social Business Summit)
 - 노벨 평화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의 주도로 개최
 - 식량문제, 난민문제, 환경문제 등 사회적 연대경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현안에 관해 기업인, 금융인, 학자 등을 초빙해 토론
 - 2) ‘혁신과 연대경제의 집’ 출범
 - 사회적 연대에 기반을 둔 혁신적 경제활동을 펼치는 경제주체를 지원하고, 이들의 활동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플랫폼

- 3) ‘레 봉 프로필’(Les Bons Profils) 플랫폼 론칭
 - ‘지속가능한 고용’의 관점에서 기업과 예비근로자를 매칭해주는 플랫폼
 - 기업과 근로자 모두 오랜 시간 함께 일할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실현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개발
 - 4) ‘사회적 연대경제’에 이바지한 경제주체 시상
 - 가장 많은 공헌을 한 경제주체에 메달을 수여하고, 충분한 금전적·제도적 지원을 제공
 - 5) 파리시와 주변지역(수도권) 간의 연대에 공헌한 프로젝트 시상
 - 파리시와 주변지역 간의 연대가 소홀했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강화하는 7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고 금전적·제도적 지원을 제공
- 파리시가 주목한 사회적 연대경제 사례: ‘파리솔리다리-테’(ParisSolidari-thé)
- 자신의 실업상태에 문제의식을 느낀 청년 플로라 두빌레(Flora Doubilet)가 만든 단체
 - ‘파리’와 연대를 뜻하는 프랑스어 ‘솔리다리테’(Solidarité)를 조합하고, 끝부분의 ‘té’를 차(茶)를 의미하는 ‘thé’로 변형한 이름
 - 이름의 ‘-테’(-thé)는 사회적 연대경제에 관심 있는 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 단체의 목표를 상징
 - 주요사업은 긍정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회적 연대경제 활동의 발굴
 - 단체 회원이 파리시를 돌아다니며 사회적 연대경제의 관점에서 취합 가능한 요소를 탐색하고, 이를 소기업이나 파리시와 연계해 실행
 - 사회적 배제에 맞서 싸우는 프로젝트의 활동거점이 되어주는 연대카페 ‘물랑 아 카페’(Moulin à Café)를 설립
 - 빈민에게 자전거를 기부하는 ‘솔리시클’(Solicycle), 폐기물을 필요한 물건이나 예술작품으로 바꿔주는 ‘레제르브 데 자르’(Réserve des Arts) 등과 협력

<https://www.paris.fr/actualites/des-rencontres-uniquement-positives-avec-parisolidari-the-5288>

<https://www.paris.fr/actualites/l-economie-sociale-et-solidaire-vous-donne-rendez-vous-5249>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환경·안전

좁은 회전반경·골목에도 대응 가능 소방차 투입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환경·안전

- 미국 샌프란시스코市는 자전거도로, 이중주차, 우버 정류장 등으로 점점 좁아지고 복잡해지는 도로 사정에 맞춰 기존모델보다 작은 크기와 좁은 회전반경을 지녀 골목길에서도 화재대응이 가능한 새로운 소방차를 투입
- 배경
 - 보행자와 자전거 위주의 도로 설계는 소방활동에 불리
 - 자전거도로, 사거리 모퉁이의 돌출부(Bulb-Out), 과속방지턱, 로터리, 속도제한 등 보행자와 자전거를 보호하는 도로 설계는 소방차의 운행에는 불리
 - 뉴욕, 볼티모어 등 다른 대도시도 비슷한 문제를 겪는 중
 - 샌프란시스코시는 신형 소방차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변화하는 도로디자인과 교통상황에 소방차도 적응해야 한다는 판단
 - 2014년부터 새로운 도시환경에 맞는 소방차 제작을 계획
 -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차를 개발
 - 유럽·싱가포르 등에서 사용하는 소형 소방차는 목조건물이 많아 화재진압에 많은 물이 필요하고 경사지대가 많은 샌프란시스코에는 적합하지 않아
 - 크기가 작으면서도 최소 1,900ℓ의 물을 싣고 평균 경사 22도의 오르막을 오를 수 있는 신형 소방차를 개발
- 주요 내용
 - 신형 소방차는 기존모델보다 좁은 골목에서 활동하기 유리
 - 기존모델보다 길이는 10인치(25.4cm), 너비는 2인치(5.08cm) 작아짐
 - 회전반경이 33피트(10.3m)에서 25피트(7.6m)로 크게 개선
 - 소방차 주위 360도를 살필 수 있는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해 보행자나 자전거와 충돌을 예방
 - 호스 연결부와 조작 버튼 등을 안쪽에 배치해 좁은 골목에서 활동이 가능

- 도로 폭이 좁은 차이나타운과 금융거리 (Financial District)지역 위주로 도입
 - 올 11월에 3대를 도입했고, 2년 내 5대를 더 도입할 예정



[그림 1] 각종 조작 버튼을 차량 안쪽에 배치해 좁은 골목에서도 쉽게 사용



[그림 2] 사각지대를 살필 수 있는 360도 카메라를 설치

<https://www.wired.com/story/sanfrancisco-smaller-firetrucks>

<https://sf.streetsblog.org/2017/11/03/fire-departments-new-vision-zero-truck>

김용훈 통신원, kim523@uwindsor.ca

주민투표로 석탄발전 2022년까지 완전 중단 결정

독일 뮌헨市 / 환경·안전

- 독일 뮌헨市는 지난 11월 5일 시행한 석탄발전 중단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참여시민 60.2%의 찬성으로 2022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
- 배경
 - 시민단체 ‘석탄발전 밖으로’(Raus aus der Steinkohle)가 주민투표를 제안
 - 해당 단체는 뮌헨지역에서 석탄발전이 유발하는 CO₂ 배출량이 뮌헨 전체 자동차의 CO₂ 배출량과 맞먹는다고 주장
 - 이 단체가 제안한 주민투표에 5만 2천여 명의 시민이 청원해 시의회가 주민투표를 승인
- 주요 내용
 - 주민투표에 참여한 시민의 60.2%가 석탄발전 중단에 찬성
 - 사전 우편 투표를 포함해 17.8%의 주민이 참여(주민투표 유효기준은 10%)
 - 시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정책을 준비 중
 - 시정부는 이미 2035년까지 석탄발전을 친환경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었지만, 이 주민투표로 석탄발전 중단 시기가 앞당겨짐
 - 디터 라이터(Dieter Reiter) 뮌헨시장은 “투표율은 낮았지만, 절대다수가 석탄발전의 중단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하며, 뮌헨 도시공사와 연방정부와 협력해 후속정책을 마련할 것을 발표
 - 뮌헨 도시공사는 전력 공급의 차질 없이 석탄발전을 중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 2025년까지 뮌헨시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친환경 발전으로 생산
 - 2040년까지 뮌헨 전역의 원격 난방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지열 발전으로 대체

<https://www.muenchen.de/rathaus/Stadtfinfos/Presse-Service/Presse-Archiv/2017/B-rgerentscheid.html>

<http://www.muenchen.de/aktuell/2017-10/infos-zum-buergerentscheid-raus-aus-der-steinkohle.html>

<http://www.sueddeutsche.de/muenchen/heizkraftwerk-nord-kraftwerk-buergerentscheid-darueber-duerfen-die-muenchner-abstimmen-1.3716157>

선지원 통신원, jiwon.su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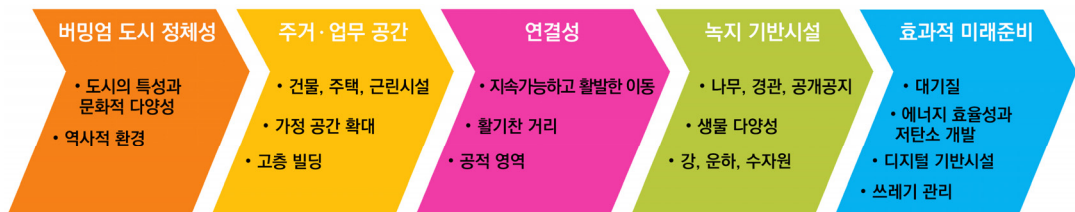
도시계획·주택

도시정체성 등 5개 테마 담긴 ‘디자인 가이드라인’

영국 버밍엄시 / 도시계획·주택

- 2031년까지 5만 호 이상의 주택과 75만㎡의 상업지구 신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준비 중인 영국 버밍엄시는 앞으로 시행할 모든 개발 계획수립의 원칙이 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
- 배경
 - ‘버밍엄 도시개발 계획’(The Birmingham Development Plan 2031)에 따라 2031년까지 많은 개발사업이 대기 중
 - 51,100호의 신규주택 공급, 75만㎡의 상업지구 신축, 영국의 고속철도인 HS2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기차역 증축, 지역재생 사업 등
 - 시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러한 개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자인 가이드라인’(New Birmingham Design Guide)을 제시
 - 시정부는 높은 수준의 디자인, 지속가능한 개발, 연결성 강화, 포용도시의 가치를 추구
 - 앞으로 시행할 모든 개발사업의 원칙이 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
 - 버밍엄시가 지향하는 도시개발 목표
 - 어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a great City to grow up in)
 - 주택: 살기 좋은 도시(a great City to live in)
 - 직업과 능력: 성공하기 좋은 도시(a great City to succeed in)
 - 건강: 나이 들기 좋은 도시(a great City to grow old in)
- 주요 내용: 버밍엄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5가지 테마
 - 1) 버밍엄 도시 정체성(The Birmingham ID)
 - 개발사업으로 도시 고유의 특성과 유산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
 - 버밍엄시의 문화적 다양성, 역사, 생태환경은 유지하면서 개발을 진행

- 2) 주거·업무 공간(Living and Working Places)
 - 급속도로 성장하는 도시에는 주거·업무 공간의 확장이 필수
 - 2031년까지 51,100호의 신규주택과 75만㎡의 상업지구를 건설
- 3) 연결성(Connectivity)
 - 버밍엄은 역사적으로 운하를 통한 영국 수상교통의 중심지였고, 현재에도 고속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
 - 앞으로의 개발사업에도 이러한 도시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중시
- 4) 녹지 기반시설(Green Infrastructure)
 -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나무, 공원, 공개공지 등을 반드시 고려
 - 도시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지키고, 강과 운하 등 수자원을 잘 활용
- 5) 효과적 미래 준비(Efficient and Future-ready)
 -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글로벌 사회경제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시민과 기업의 대응능력을 향상



[그림 1] 버밍엄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5가지 테마

– 향후 계획

- 버밍엄 디자인·도시보전 패널(Birmingham Design and Conservation Review Panel)
 - 각계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한 패널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심사
 - 심사결과를 반영해 다시 수립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대상으로 시민·전문가 협의를 한 번 더 거쳐 확정
 - 확정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하나의 정책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이후 버밍엄 시의 모든 도시 개발사업에 적용

<https://www.birminghambeheard.org.uk/economy/birmingham-design-guide-vision>

https://www.birmingham.gov.uk/download/downloads/id/5433/adopted_birmingham_development_plan_2031.pdf

https://www.birminghambeheard.org.uk/economy/birmingham-design-guide-vision/supporting_documents/Birmingham%20Design%20Guide1.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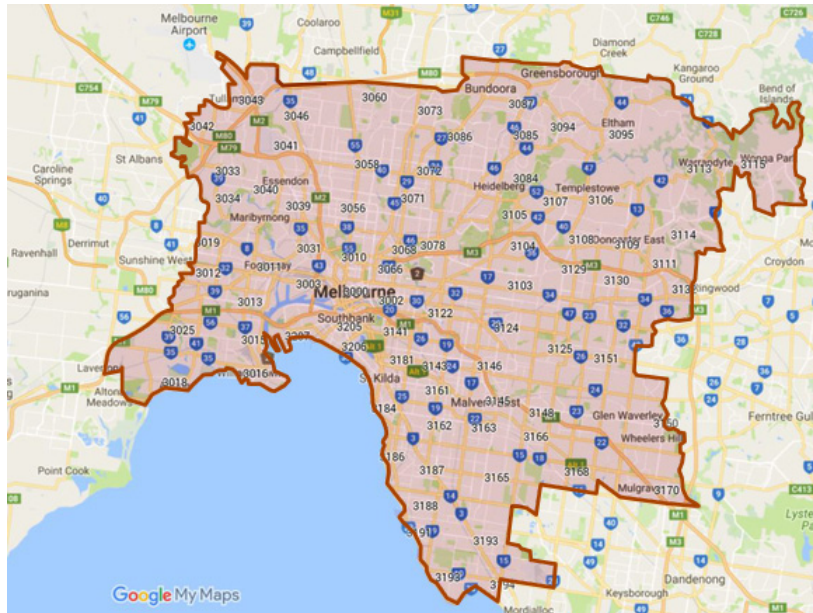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공실세 내년 시행...멜버른 도심 16개 구에 적용

호주 빅토리아주 / 도시계획·주택

- 호주 빅토리아주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주택난 해소에 역부족임을 깨닫고, 그 주요 원인인 빈집을 줄이기 위해 멜버른 도심 16개 구를 대상으로 2018년 1월부터 공실세 (Vacant Residential Property Tax)를 도입하기로 결정
- 배경과 목적
 -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의 한계를 확인
 - 지금까지 주정부는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비를 낮추고자 했음
 - 그러나 신규주택의 주 구매자인 투자자는 임대수익보다 양도 차액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 편
 - 주택 공급은 늘어났지만, 실거주자가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주택 공급은 이미 충분하다는 판단
 - 빅토리아주에는 지난 12개월간 총 70,472채의 신규주택이 공급
 - 물 사용량을 근거로 빈집을 추산한 결과, 멜버른시 전체 주택의 4.8%에 해당하는 82,724채가 빈집
 - 빈집은 대부분 투자자 소유의 주택이고, 투자자가 소유한 전체 주택의 18.9%는 빈집으로 추정
 - 공실세 도입으로 신규주택 공급 대신 현재 있는 주택의 활용도를 높일 목적
 - 공실세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시행 중이고, 호주에서는 최초 사례
 - 집주인이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도록 유도해 주택의 활용도를 높일 목적
 - 신규주택 건설 없이 가용 주택의 수를 늘려 주택난 해소에 도움
- 주요 내용
 -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
 - 멜버른 도심지와 중간 지역의 총 16개 구(Council)가 대상
 - 6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주택에 부과
 - 세율은 '자본소득 실현가액'(Capital Improved Value)의 1%
 - 자본소득 실현가격은 현재 시장가격에 근접한 수준에서 주택이 판매되었을 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총소득을 의미

- 일반적으로 주정부의 재산세가 지가(地價)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과 대조적



[그림 1] 멜버른시 공실세 과세대상 지역

- 빈집의 확인은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자진 신고를 바탕으로 확인
 - 집주인은 주정부 재무부에 신고하고, 재무부는 신고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 다양한 예외 조항 존재
 - 휴가를 보내기 위한 홀리데이 하우스(Holiday House)로 사용되는 주택
 - 통근자가 업무 목적으로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도심 아파트
 - 집주인의 사망으로 빈집이 된 주택
 - 집주인의 일시적인 해외 거주 등 합법적 예외 조항 다수
- 주택난 해소 외에 세입 증가의 부수적 효과도 기대
 - 앞으로 4년간 약 8천만 호주달러(660억 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https://www.premier.vic.gov.au/warning-on-empty-investment-houses-rent-sell-or-pay-more>

<http://www.thompsonsaustralia.com.au/victorian-vacant-residential-property-tax>

정용문 통신원, junraphael@gmail.com

쇼핑명소 옥스퍼드 거리,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

영국 런던市 / 도시계획·주택

- 영국 런던市는 혼잡한 도심지에 있는 쇼핑명소 옥스퍼드 거리(Oxford Street)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줄이는 한편, 도로시설물을 개선하고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해 런던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세계적 수준의 쇼핑거리로 조성할 계획
- 배경
 -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있는 쇼핑명소
 - 옥스퍼드 거리는 ‘혼잡통행료’와 ‘유해배기가스 부담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시내 중심지에 위치(※ 419호 참조)
 - 차 없는 거리(Traffic-Free)로의 전환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랜드마크 형성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계획
 - 시정부는 전환계획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2017년 4월부터 협의회를 진행
 - 1만 2천여 건의 전문가·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62%가 긍정적 평가
 - 시정부는 사례 깊은 우려의 의견도 성실히 경청하고, 모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다시 제작한 전환계획 보고서를 2017년 11월 공개
- 주요 내용
 - 전환계획의 목적과 의의
 - 시내 중심지에 시민과 관광객이 쉽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 마련
 - 오랫동안 제기된 옥스퍼드 거리 주변의 도로안전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
 - 지역의 전통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기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
 - 3차례에 걸쳐 차 없는 거리로 전환
 - 1차로 2018년 12월까지 서쪽 일부 80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전환
 - 2차로 2019년 12월까지 동쪽 구간을 전환하고, 나머지 서쪽 구간은 2020년 이후에 전환할 계획
 - 런던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세계적 쇼핑거리로 조성
 - 기존 도로시설물을 개조하고, 새로운 공공미술작품을 설치
 - 2018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루미나리에(축제조명)를 설치

-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런던시의 대응
 - 런던시민은 차 없는 거리로의 전환계획에서 교통혼잡을 가장 우려
 - 시정부는 올여름부터 이 지역을 지나는 버스의 통행량을 서서히 줄이면서 시민에게 적응기간을 제공
 - 전면 교통통제가 시작되는 2018년 12월에 맞춰 새로운 지하철 노선인 엘리자베스 라인을 신설
 - 동서로 길게 뻗은 옥스퍼드 거리의 중간에 북남방향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5개 소규모 구간을 두어 최소한의 통행을 허용



[그림 1] 차 없는 옥스퍼드 거리 예상 이미지



[그림 2] 옥스퍼드 거리에 설치될 공공미술작품 예상 이미지

<https://www.london.gov.uk//city-hall-blog/plans-traffic-free-oxford-street-unveiled>

<https://consultations.tfl.gov.uk/roads/oxford-street/?cid=oxford-street>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7/nov/06/oxford-street-traffic-free-boulevard-london-mayor>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편집출간팀 담당자(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뉴욕	이창주
	황 하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시애틀	강민규
시카고	김용훈
런던	오도영
버밍엄	정기성
파리	배세진
	양영란
원헨	선지원
베를린	유진경
바르셀로나	진광선
시드니	정용문
도쿄	김민주
	이승민
	이용원
베이징	박성은
상하이	문혜정
홍콩	강민이
싱가포르	서보경
피렌체	김예름
스톡홀름	허윤희